

# 데스크시각

박치경



다음달 3일이면 꼭 100일 쯤다. 경제회생과 사회통합을 외치며 지난 2월 25일 출범한 이명박 대통령(MB)은 6월 3일 취임 100일을 맞게 된다.

100이란 숫자의 상징성은 매우 크다. 우선 갓난 아기가 100일을 무탈하게 보내면 온 가족이 모여 백일잔치를 연다. 연인들은 만난 지 100일이 되면 서로 마음을 다시 확인하고 사랑을 키워간다. 수험생이나 큰 시험을 앞둔 운동선수들은 100일 전에 다시 한 번 의지를 다진다.

공직자들 역시 취임 100일은 소중하다. 직위가 높긴, 낯익은 업무를 맡은 지 100일이 가까워지면 일의 출발이 잘 됐는가, 앞으로도 직분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가 등을 짚어보며 각오를 새롭게 한다.

## 불협화음 오케스트라

하물며 국민에게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대수롭지 않게 맞을 수 있을까? 대통령의 심정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일이지만, 국적이 난마처럼 얽혀있는 상태에서 취임 100일을 맞는 MB의 소회는 그리 가볍지만은 않을 것 같다. MB도 역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잘해야겠다고 단단히 마음먹고 출발했다. 하

# 새정부 100일, 잔치보다는...

지만, 100일을 앞둔 국민의 평가는 매우 낮다는 게 세간의 평이다. 지금 국민들은 흥에 겨워 새 대통령 취임 100일 잔치를 만들 기분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MB 정부 100일의 대한민국이라는 오케스트라는 '불협화음'으로 축약된다. 정부와 국민은 소통 부족으로 아름다운 선율을 뿔어내지 못하고 있다.

요즘 대한민국 불협화음의 특성과 요인을 열거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가장 큰 특징은 소시민과 학생들로 대변되는 기층 국민의 마음이 뒤늦었다는 점이다.

직전인 노무현 정부 때는 주로 진보와 보수세력의 이념갈등이 소음을 불러왔다.

그러나, MB 정부의 초기 난맥상은 또 다르다. MB정권의 지향점에 따라 사회가 보수화 경향을 띠는 것은 대세라고 치자. 그러나 MB와 맞서고 있는 '주력층'이 여론의 '참봉'인 가정주부, 학생, 소시민들이라는 점에 그 심각성이 크다.

인수위 시절부터 강조된 '영어로입식 교육'은 부유하지 못해 아들 딸 공부에 인생을 걸다시피한 수많은 엄마를 화나게 했다. 돈 걱정 없어 해외유학이나 연수를

지방과도 불편해 졌다. 혁신도시 건설, 공기업 이전 재검토 방안은 그러잖아도 서울만 생각하면 힘이 빠지는 지역주민들의 어깨를 더 늘어뜨렸다. 노무현 정부의 '역적'인 혁신도시와 지방분권을 흐드는 배경이 뭐냐는 의구심도 일었다.

## 똥 골라야 마음 풀어나

마침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으로 국민의 불안이 폭발했다. 프로답지 못한 일처리가 불러온 '광우병 괴담'에 종교생들은 연필 대신 촛불을 들고 거리로 몰려 나왔다. 100일도 못돼 MB는 국민 앞에 머리를 숙여야 했다. 부결됐지만 새 달밖에 안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안은 초기의 혼란을 대변한다.

그렇다고 국민의 입장에서 새 정부의 백일 상(床)을 모르 체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처음부터 어른으로 세상에 나오는 게 아니다 초기 시행착오는 오히려 예방주사가 될 수도 있다.

백일 상에는 대개 실태(수명), 돈(재물), 연필(학식, 지혜) 등을 놓고 상 주인에게 고르게 한다. 대통령과 집권당, 정부 각료들은 다음달 3일 치러질 백일 상에서 토라진 국민의 마음을 풀어나기 위해 똥 집어들 것인가를 숙고해야 한다.

※체육·여론매체부장 unipark@kwangju.co.kr

대수롭지않게 생각하는 부자들의 자식에 한 참을 뒤처질 생각하니 대통령을 쳐다보는 눈길이 고물리 없다.

터무니없이 돈이 많은 일부 장·차관, 청와대 수석들을 임명할 때마다 텔레비전 '강부자'씨는 괜히 입살에 올라야 했다. 역대 정권마다 걸핏하면 개혁대상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공무원들 역시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다. 공무원들 스스로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당장 밥줄이 끊기 치자라면 좋은 말을 기대하기 어렵다.

※체육·여론매체부장 unipark@kwangju.co.kr

# 기고

김창석



흔히 지방자치단체 성패의 관건은 지방재정 확충에 있다고 한다. 올해 장흥군 재정자립도는 9.7%로 전국 최하위권에 속한다. 그나마 지난해에 비해 0.1% 성장했지만 지표수치만으로는 여전히 낙후된 지역으로 분류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놀라울 정도로 성장하고 있어 고무적이다. 이는 민선 3기부터 친환경을 정점으로 한 '푸른 장흥'에 이어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테마형 문화콘텐츠 산업개발에 눈을 돌리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2005년 전국 최초로 개장한 정남진

이 같은 성장과 함께 군민들의 또 하나의 관심사는 해당·회진 2개 지구에 확정된 지방산업단지 조성의 부분 품에 있다. 지난 10여년 간 노력 끝에 획기적인 성과물로서 올해부터 2011년까지 4년간 계획으로 486만㎡ 부지에 총사업비 2천260억원이 투입되는 단지 내에 들어설 기업 투자유치에 온 군민이 발뚎고 나선 것이다.

미래 학자들은 문명시대의 삶의 패턴을 이제 공기가 혼탁한 도시에서 환경이 청정한 시골로 옮겨지는 추세라며 편리함도 좋지만 웰빙 쪽에 무게를 더 두고 있다. 저렴한 자가와 각종 보조금, 세제 혜택 등 특혜를 내세운 기업유치

# 여건 좋은 장흥군 지방산업단지

장흥 토요시장은 주말이면 1일 평균 3천여명의 방문객이 몰려 한우 판매역만도 연간 매출 226억원을 올렸다. 중소기업청은 청와대 업무보고때 이를 전국 최고로 평가한 바 있다.

이렇게 재래시장 성공을 기폭제로 장흥에 생약초 한방특구와 정남진 장흥문화관광기행 특구 등 2개의 특구가 지정되었고 오는 8월 완공 목표로 회진 앞 바다의 해양낚시공원을 조성 중에 있다.

여기에는 100ha의 면적에 울창한 편백나무가 조성된 역물산자락 우드랜드 사업과 연계한 아토피치료 재활 단지 조성에 국도비 60억원을 투자한다. 또 생약초 한방특구당게 280억원을 들여 한 방안으로 공립예술기관이나 단체의 재단법인화가 이뤄져야 하고 극장 운영을 예술경영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건강식품인 무가산 김양식 선태포도 가졌고 장평, 유치면 전역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이탈리아 치파솔로 연맹으로부터 슬로시티 인증까지 따냈다.

# 러브콜에 벌써 100억원 규모의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그 밖의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계획된 광주~장흥 4차선이 개통되면 광주에서 불과 40분 거리다. 또 장흥에는 자랑거리가 많다. 특산품으로는 전국 13% 생산의 표고버섯과 한우(2천800농가, 3만8천두)로 이미 정평이 나 있으며 또한 계절에 따라 철쭉, 키조개, 갯장어, 전어, 바다나시, 역세채 등 볼거리, 먹거리의 체험 자원이 풍성하다.

여기에는 건강한 노후의 안식처로 퇴직자 가족의 온돌을 착안 은퇴자 마을까지 설계 중에 있다. 군은 지역의 대표축제인 장흥대하류 탐진강 수변의 고색창연한 정자와 산수를 배경으로 물고기와 숲이 함께 노는 제1회 정남진 물축제 오는 8월로 정해놓고 준비에 한창이다.

이제 5만 장흥시민들은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친절·정성 장흥은 기회의 땅이다. <장흥군 용산면장>

# 하루 1시간 이상 '전등 끄기 운동' 펼쳐자

지구온난화 억제에 지구촌 과제다. 석유나 가스 등 에너지 자원은 몇 십년 내에 바닥날 것이고, 대체연료 개발은 그 속도가 너무 느리다. 우리 후손들이 '에너지 고갈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발등의 불이 됐다. 화석연료 소비를 최대한 낮추고 대체에너지 개발에 최대한 가속도를 붙여야 하는데 이를 위한 최우선 실천과제는 에너지 절약이다.

세계자연보호기금은 '전등 끄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가동등이나 주조 시설물의 조명등을 하루 1시간 이상 끄자는 운동이다. 나 홀로 운전 대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

하고 무심코 저지르는 에너지 낭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모든 공공서도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낮에는 사무실 불 필요하면 전등을 끄고, 조도를 낮추고, 야간 옥외 조명 등 전력 사용을 최소화하며, 화장실 조명등 50% 소등, 냉·난방 온도 적정 조절, 남자화장실 소변기 센스 작동시간 축소 등으로 연간 에너지를 10% 이상 절약해야 한다.

'작은 실천'이 모여야 큰 성과를 내고, 지구온난화가 늦춰진 만큼 대체에너지를 개발 할 시기를 벌게 된다. <김승철·광주시 동구 동명동>

# 은펜칼럼

차영호



극장을 구분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나누는 기준은 극장운영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있다. 크게는 단순한 이익보다 사회의 공익을 위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공공극장'과 이윤창출이 경영의 가장 우선시되는 '상업극장'으로 나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상업극장이라는 성격에 맞는 극장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흥행이나 이윤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극장도 드물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 목적을 온전히 수행하고 있는 극장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 나라의 대부분의 극장은 '공공극장'이 주류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과 해의 라이선스 작품들이 주를 이루는 대관공연프로그램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공공 극장으로서의 제 기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서울에 있는 아르코예술극장(옛 서울문화회관)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 오고 있다.

'나눠주기 식 대관을 지양하고 연극과 무용을 중심으로 한 상징적인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극장의 새로운 운영 목표가 그동안의 단순대관업무에서 기획, 제작력을 갖춘 극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질 좋은 공연을 관객들에게 제공하는 공공극장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통해 극장의 이미지를 새

# 공공극장과 대관

이들 공공극장은 공연예술계의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은 물론 국민들에게 문화향수의 기회를 확대시킨다는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설립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극장들이 이 같은 운영 목표는 그저 전시용에 그치고 있다. 예술가들의 놀이터이자 관객들의 집이여야 할 공공극장의 문턱은 자꾸 높아지고 예술품들도 관객들도 쉽게 찾아가지 못하는 기현상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예술가들의 창작의 산실로서 그 토대를 마련해야 할 전국 대도시의 공공극장들은 대형뮤지컬을 수입하는 기획사들의 차지가 되어 버렸다. 기획사들은 비싼 비용을 뽑아내기 위해 관람료 가격을 올리고, 10만원의 비싼 관람료는 소수의 계층만이 향유할 수 밖에 없다.

이렇듯 기획공연보다는 대형뮤지컬

를 기획정착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아르코예술극장의 변화는 공공극장이 문화예술계에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좋은 선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에서 국·공립 극장 및 예술단체를 국가브랜드 창출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지역의 예술기관들이 서울에 비해 지리적, 환경적 요인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하고 지역의 공공극장을 통해 다양한 실험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고 새로운 관객층을 극장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공립예술기관이나 단체의 재단법인화가 이뤄져야 하고 극장 운영을 예술경영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연출가·광주공연문화재단 대표·2005년 1월 수상자>

은펜칼럼은 매일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실는 코너입니다.

# 금품 뒷거래 범조 브로커 엄단해야

우리 속담에 '벼룩의 간을 빼 먹는다'라는 말이 있다. 여기에 딱 들어맞는 일이 범조 브로커들이다.

이들은 수급 중인 재소자와 그 가족의 애타는 심정을 이용해 "형량을 줄여주겠다", "석방시켜 주겠다"는 감언이설로 죄어 둔만 챙기고 잠적해 버린다.

재소자와 가족들의 입장에서선 질박할 수 밖에 없다. 한 때의 잘못으로 죄값을 치르고 있지만 감형이나 조기석방을 바라지 않는다던 거짓말일 것이다. 물론 돈을 주고 형량을

줄일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 또 돈을 주고 뒷거래를 통해 형량을 줄이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특히 사기를 당한 가족들은 피해를 자처하고 싶지만 재소자 당사자의 형량이 무거워질까봐 신고도 못한다. 브로커들은 이것을 역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과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들이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해서 이같은 사기와 뒷거래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주기 바란다. <▲내재필·광주시 서구 벽진동>

# 시설

# 5·18 정신 '광주' 뛰어넘어 시대 흐름 담자

5·18 민주화운동 28주년 기념행사가 27일 옛 전남도청에서 열린 '부활제'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5·18 기념행사는 시대 변화에 따라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5·18이 여전히 광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5·18이 전통적인 틀에 갇혀 행사 위주로 진행돼 시대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난 26일 서울에서 전남대 5·18 연구소와 성공회대 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학술심포지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5·18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주장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광주가 민주화운동의 중심에 있는 지역의 장소로서 강조될수록, 호남 밖의 다른 지역 사람들이나 보수세력이 5·18의 소용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0년대를

지나면서 광주는 제도화의 뒷에 갇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같은 지적은 국민의 16%가 아직도 5·18을 '폭동' 또는 '사태'로 인식하고 있다는 한 여론조사에서 보듯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5·18에 대한 타 지역민들의 거부감이 여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지어 5·18 관련 특별법이 나와 기념일이 그저 '호남인의 한풀이' 정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제 5·18은 광주라는 지역성을 뛰어넘어야 한다. 특히 특정 지역 또는 계층이 아닌 우리 사회 전 구성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 5·18이 지역적 고립에서 벗어나려면 변화하는 시대 흐름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5·18 정신과 이념을 범시민·사회운동으로 발전시키지 못하면 5·18은 과거의 회미한 기억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 관념이 아닌 일상 속에서 5·18 정신을 실천해 나가야 5·18의 의미를 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0년대를

# '물가폭탄'에 적자살림 허덕이는 서민층

우리 사회의 고소득층보다는 중·하위층이 '물가폭탄'으로 적자살림에 허덕이고 있다고 한다. 통계청이 엇그제 내놓은 올 1·4분기 '전국 가구 분유별 적자가구 비율'에서 드러난 실태다. 경제전망이 어두운 현실에서 앞으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걱정이다.

상황은 심각하다. 소득 하위 30% 계층에서 가계살림 적자를 낸 가구의 비율이 지난해 동기보다 1.7%포인트 높은 55.8%에 달했다. 하위층의 적자가구 비율은 같은 수치를 기록한 2006년 1·4분기를 제외하고 전국 가구에 대한 가계수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2003년 이후 가장 높다.

중산층의 적자가구 비율도 26.9%로 지난해보다 1.6%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소득 상위 30%인 고소득층의 적자가구 비율은 14.4%로 0.8%포인트 떨어졌다. 고물가가 서민층과 중산층을 '적자 살림'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적자가구 비율은 소득과 지출의 수치

를 보여주는 지표다. 적자가구가 증가하는 것은 해당 기간 벌어들인 소득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출했다는 의미다. 서민층이나 중산층의 소비행태는 변화가 없는데 물가가 오르면서 생활이 더 팍팍해지고 있는 것이다.

장바구니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다. 기름값을 비롯 생활필수품과 음식값 등 오르지 않은 품목이 거의 없다. 물가 상승에 경기 불황, 고용 부진 등이 맞물리면서 서민생활을 힘겹게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경기 침체속에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지만 피부로 느끼는 국민은 없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고물가와 조류 인플루엔자, 광우병 파동 등으로 줄소산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는 경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물가 관리와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 無等鼓

최근 국내 연구진들이 웃음과 장수하는 사람들의 상관관계를 조사, 의미있는 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100세를 넘겨 장수하는 '백세인'은 '팔순인'(80~89세)보다 10배 가량, '환갑인'(60~69세)보다 12배 정도 더 많이 웃는다는 것이다. 또한 백세인은 팔순인에 비해 병원 이용률도 눈에 띄게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웃음 그 자체가 정신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원광대 보건대학원 김중인 교수는 국내 노인층을 백세인과 팔순인, 환갑인 등 3개 집단으로 나눠 각 그룹간 장수 요인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백세인은 팔순인보다

원 이용률은 팔순인의 11분의 1 수준에 머물렀으며 환갑인에 비해서는 4분 1 정도였다. 의미있는 조사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웃음요법 치료사들은 사람이 한 번 웃을 때의 운동효과는 에어로빅 5분 운동량과 같다고 주장한다. 평상시 뇌가 위축돼 산소 공급이 되지 않다가 활짝 웃으면 뇌가 깨어나며 산소도 활

발하게 공급된다. 또 전신운동이 저절로 이루어져 5분 웃은 것이 5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낫다는 주장도 판다.

미국 스포츠의학대 윌리엄 프라이 박사는 사람이 크게 웃을 때 몸 속 650개 근육 중 231개가 움직여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설명한다. 크게 웃으면 신체는 물론 위장·근육·심장까지 움직이게 해 상당한 운동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인정이 각박해지고 웃음이 사라져 가는 요즘이다. 웃으면 복이 온다'고 했듯 우리 사회 곳곳에서 건 강한 웃음이 넘쳐났으면 좋겠다.

스트레스가 덜 한 탓에 백세인의 병

/김우성 정치부장 wskim@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19 (F A X 222-0118)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치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광고마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사회 1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 1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다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